

협회소식

양돈업 허가·사육상한선 철폐 절대 반대

— 임원·지부장 연석회의에서 결정



본회는 정부가 지난 6월 14일 발표한 농어촌발전대책에 사료 및 동물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사료 및 동물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중앙 4대 일간지에 대대적으로 발표하고 사태추이를 보다 더욱 강력한 방법의 선택도 불사하기로 했다.

본회가 지난 7월 6일 개최한 임원·지부장 연석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정부가 지난 6월 14일 발표한 농어촌발전대책에서 우리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인 사료 및 동물약품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이 누락된 것은 핵심빠진 군더더기정책의 나열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양축농민의 10여 년간의

숙원사항이자 대선공약이었던 이 문제를 끝내 무산시켜 버린 것은 농민을 우롱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처사”라고 성토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성명서 발표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집행부에 일임하고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각 지부에서 힘을 모아 계획추진에 따르는 재원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이날 참석자들은 부가세 문제와 더불어 정부의 양돈업 허가제 및 돼지 사육 상한선 폐지 움직임과, 분뇨처리문제, 방역 및 위생문제 등을 앞으로 해결해야 할 주요과제로 삼고 이를 위해 적극 노력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동용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사회적으로는 북핵문제, 남북정상회담 등의 소식이 들리고 양돈업계에서는 사육호수의 대폭적 급감, 돈육 수입량의 증가, PED에 의한 피해 등 복잡한 상황속에서 현재 우리 양돈인들이 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들에 대한 대책을 모색해 보고자 회의를 개최했다”고 말하고, “6·14 농발대책에서 사료곡물에 대한 관세 인하,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것은 양축농민들의 오랜 노력의 결과”라고 밝혔다.

또한 “6·14 대책이 농민들의 의견을 상당부분 수용한 것은 사실이나 가장 중요한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세

영세울 문제가 배제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하고, "그러나 희망을 잃지 않고 우리는 계속 이 문제의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할 것이며 아울러 최근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분노처리, 질병방역, 각종 자금지원제도의 개선, 자조금제도의 타결을 위해서도 힘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영한 전무는 수입육 유통실태, 분노처리 관계 법규 개정상황, 경기전망 등 업계 동향 및 가축분뇨자원화추진위원회 활동, 해외산업시찰, 방역대책추진위원회의 개최 등 본회 활동상황에 대해 보고했다.

참석자들은 양돈업 허가제 및 돼지 사육 상한선 폐지와 관련한 정부의 축산법 개정예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회의 결과를 농림수산부에 정식으로 통보키로 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94년도 자조금사용계획, '95년도 회비 및 자조금 부과기준(안),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2검정소회계 예산추경 및 항간 전용(안) 등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박래면 연기자부장, 최성국 울산시지부장 등 신입지부장에 대한 인준서가 수여됐다.

본회 부가세 영세울 적용 촉구 성명 발표

— 낙농육우협회, 양계협회와 공동으로

본회는 정부가 지난 6월 14일 발표한 농어촌발전대책에 배합사료와 동물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울 적용 문제가 누락된 것에 대해 지난 6월 24일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양계협회와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배합사료와 동물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울 적용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3개 단체는 이 성명서에서 "축산농민의 숙원이자 대통령 선거공약인 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울 적용을 파기시키고 영세농민들에게 기어코 부가세를 받아내서 일부 극소수 특정인에게 혜택을 준다는 발상은 국제경쟁력 제고 이전에 정부당국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 것"이며,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하루속히 청산하여 약자도 맘홀리면 그 댓가를 맛볼 수 있는 농촌사회 풍토를 만드는 정책을 실현하지 않는 한 현정권은 농민의 지탄을 면키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가장 고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료와 동물약품의 부가세를 철폐시켜 양축가의 숙원을 실현시키는 길만이 국제경쟁력을 키우고 상호신뢰를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2차 방역대책추진위원회의 개최

본회 방역대책추진위원회(위원장 : 백우현)는 지난 6월 28일 본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현재의 돼지질병 방역상의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했다.

방대위는 7월부터 실시되는 종돈장 위생관리요령에 검사기관이 가축위생시험소로 되어 있으나, 현재 가축위생시험소는 인력부족으로 가검물 채취 및 종돈장 확인 등의 검사를 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방역체계가 확립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위생관리요령 시행기관을 본회로 이관해 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

방대위는 종돈장 위생관리요령에는 종돈장에서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돼지중 5% 또는 20두 이상의 돼지에 대해 검사기관인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위축성비염, 마이코프라스마페렴, 홍막페렴, 파스튜렐라페렴 등을 연 2회 이상 정밀검사토록 하고 있으나, 현재 1·2검정소에 출품중인 60개 농장만 해도 9,600종의 가검물을 채취, 검사해야 하는데 이를 가축위생시험소가 해내기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위생관리요령 시행기관을 한시적으로나마 본회로 이관하고 이에 따르는 인력, 비용 등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해외약성질병 유입방지에만 사용토록 되어 있는 촉진기금을 방역 및 질병치료에도 사용토록 해야 하며, 입식종돈의 질병검사에 있어 종돈구입후 1개월간 격리해 임상검사, 실험실검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를 구입자가 구입종돈장에서 무질병확인서와

접종확인서를 받는 것으로 대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대위는 이날 논의내용을 차후 정부에 정식 건의키로 했다.

본회 '94 세계양돈박람회 시찰단 귀국



본회 '94 세계양돈박람회 시찰단이 지난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8박 9일간 박람회와 미국의 양돈업계를 시찰하고 귀국했다.

본회 전동용 회장, 이명복 부회장과 지부장, 회원 등 19명이 참석한 시찰단은 '94 세계양돈박람회('94 World Pork Expo)와 양돈기자재, 자동화시설, 사료급이시설, 비육 양돈장, 폐수처리시설 등을 시찰했다.

본회 한해성금 142만원 KBS에 전달

본회 전동용 회장과 직원 일동은 27일 최근 심각한 한발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양축농가에 도움을 주고자 작은 뜻을 모아 한해지역 피해민돕기 성금 1백41만9천원을 KBS에 전달했다.

본회, 상반기 감사 수감

본회는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이현운, 유진헌 감사로부터 '94년 상반기 자체감사를 수감했다.



이현운 감사



유진헌 감사

이현운, 유진헌 감사는 이번 감사에서 금년 상반기에 본회가 시행한 홍보사업, 자조금사업, 제1·제2검정소 사업 등 회무 전반에 대한 감사와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제2검정소에 대한 현지감사도 실시했다.

청도지부, 하계수련회 개최

청도지부(지부장: 박위출)는 지난 7월 14일 청도군 운문면 운문령에서 본회 유진헌 감사, 조옥봉 경북도협 의회장을 비롯, 40여 명의 회원과 지역 사료대리점 양돈 PM들이 참석한 가운데 하계수련회를 개최했다.

이날 수련회에서 참석자들은 사조냉장(주)이 지난 7월 12일 스포츠서울에 게재한 삼겹살관련 광고에 대해 격렬히 성토했다.

마산지부 창립 20주년 기념식 개최

마산지부(지부장: 김준수)는 지난 7월 8일 창원가든 부페에서 본회 최상백 부회장, 신태식 부산·경남양돈 조합장, 경남도축산과장과 본회 회원 등 9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부 창립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국제경쟁력 향상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합천지부, 질병방역대책강연회 개최

합천지부(지부장: 하수갑)는 지난 7월 12일 합천읍 회원예식장에서 지부회원 및 지역양돈농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질병방역대책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에서는 합천에서 수의사로 일하고 있는 김태주 씨가 연사로 나와 여름철 돼지질병관리요령에 대해 강의하고 양돈농가들과 질의·응답의 시간도 가졌다.

제천시부, 영농조합법인 설립 및 사무실 이전



송동혁 대표이사

제천시부(지부장 : 이상길)가 지난 6월 20일 제천양돈영농조합법인을 설립했다.

39명의 회원이 총 13,880좌를 출자해 결실을 보게 된 제천양돈영농조합법인은 송동혁 전 지부장을 대표이사로 선출하고 조합원의 소득증대와 권익향상을 위해 생산성 향상, 경영합리화를 이루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동조합법인은 앞으로 양돈협업 및 공동작업, 축

분을 이용한 유기질비료의 공동생산, 공동판매, 종돈생산 및 분양, 사료 및 기자재의 공동구매 등의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조합법인의 사무실은 제천시부와 공동 사용한다. 한편 제천시부는 지난 6월 사무실을 아래 주소로 이전했다.

- ▲주소 : 충북 제천시 명동 245-7
- ▲전화 : (0443)46-8981
- ▲FAX : (0443)46-8985

업·회·단·신

아산지부, 사무실 이전

아산지부(지부장 : 김현병)가 지난 7월 2일 아래 주소로 사무실을 이전하고 FAX를 설치했다.

- ▲주소 : 충남 온양시 모종동 593-3 아산축협 5층
- ▲FAX : (0418)546-9170

논산지부 사무실 이전

논산지부(지부장 : 김길중)는 지난 7월 9일 아래 주소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 ▲주소 : 충남 논산군 연무읍 안심리 1-134
- ▲전화번호 : (0461)741-6264(변동없음). ☎

